

## “엔지니어는 고객에게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살아야”

(주)이오테크닉스 장비사업부 안병민 부장

글로벌 톱(Top) 레이저 메이커 (주)이오테크닉스(대표 · 성규동, www.eotechnics.com)는 레이저마킹기, 레이저드릴러, 레이저트리머 등 각종 레이저 응용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레이저 응용기기 메이커로 도약하고 있다. ‘직원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병민 부장이 이 회사에 입사하여 8년의 기간동안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안병민 부장 개인적으로는 2004년 ‘장영실상’ 수상에 이어 지난 연말에는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안병민 부장을 만나 그간의 업무 성과와 엔지니어로서의 일과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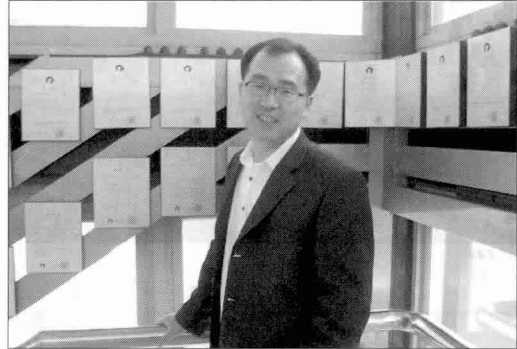
안병민 부장을 만난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 분명 지난주에 해외출장 갔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했었는데 다음날 전화를 해보면 이번엔 중국출장을 떠났다는 허무한 답변을 들어야 했고, 출장 아니면 고객사와 미팅중이라는 짙막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번의 전화질(!) 끝에 겨우 약속을 잡고 대면을 한 날, 선한 인상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안병민 부장에게 기자는 근황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 회사 레이저응용장비들이 거의 수출품이고 제가 장비사업부에 있기 때문에 해외출장이 많아요. 1년의 절반정도는 해외출장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밀기기 진동소음분야가 전공인 그에게 이오테크닉스에 입사 후 맡은 레이저장비 개발 쪽의 일은 그리 호락호락한 분야가 아니었다. 레이저 장비라는 것이 기계, 소프트웨어, 레이저 분야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인데 입사 후 3~4개월 뒤 장비개발 팀장을 맡으며 항상 레이저분야쪽으로 공부를 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안병민 부장이 개발한 레이저장비 첫 작품은 웨이퍼 마킹기. 당시 1세대 장비를 시작으로 현재 4세대까지 꾸준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레이저 웨이퍼 마킹, 레이저 쇼잉(Sawing)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핵심 반도체용 레이저 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전념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장비가 세계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수출 증대를 통한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2007년 12월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 부장이 올린 큰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 웨이퍼에 마킹하는 웨이퍼레벨 CSP마킹시스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웨이퍼레벨 CSP 공정상 웨이퍼 뒷면(1×1mm 이하의 크기)에 회사 및 제품 번호를 0.15mm 크기로 20자 이상 고정밀도로 레이저 마킹을 통해 식각하는 장비로서, 이 분야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안 부장의 아이디어인 자동위치 보정 기능에 대한 특허 1건과 웨이퍼 휨 보정 장치에 대한 특허 1건은 동 장비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2천200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매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오테크닉스의 매출 증대와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발휘해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한 안병민 부장. 그의 뒤로 가득 보이는 특허 등록증들 사이에 그의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한 자동위치 보정 기능에 대한 특허와 웨이퍼 휨 보정 장치에 대한 특허증도 있을 것이다.

안 부장은 이러한 WL-CSP 레이저마킹시스템 개발을 통해 2004년 12월에 52주차 장영실상 수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또한 안 부장은 기존의 워터젯(Wafer Jet)이나 기계 쇼잉(Sawing) 장비가 독식하던 메모리카드 쇼잉 시장에 2006년 레이저 쇼잉 장비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일본과 독일 등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등 수출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또한 안 부장의 아이디어를 통한 커팅 정밀도 향상을 위한 스캐너 보정법 개발, 커팅 분진 최소화를 위한 레이저 파라미터 확립 등의 신기술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영실상에 이은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의 영예**

결국 회사매출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력의 원천은 고객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다는 것이 안 부장의 지론이다. 불과 2~3년 전까지는 직접 장비 셋업을 하고, 지금은 기술미팅으로 짜여진 일정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그는 말한다.

“응용장비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에 대한 봉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만든다 해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한 장비개발에 있어 스피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

이오테크닉스에 입사할 당시 본사 건물 1개동에서 현재 건물이 4개동으로 늘어나 있는 것만 봐도 회사가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는 것을 느낀다는 안 부장. 실제 당시 직원도 70명에서 현재 300명으로 늘어나고 매출 면에서도 그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니 직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사람을 좋아할 때 이유가 없이 그냥 좋다고 하잖아요. 현재 직장이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딱히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웃음)”

그래도 이유를 꼽으라는 기자의 집요한 요청에 그는 “회사에서 연구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 해주어 엔지니어들이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많은 기회를 베풀어주시는 사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큰 자랑으로 꼽았다.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는다는 안병민 부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웃음을 머금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성공시켜서 회사매출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는다.